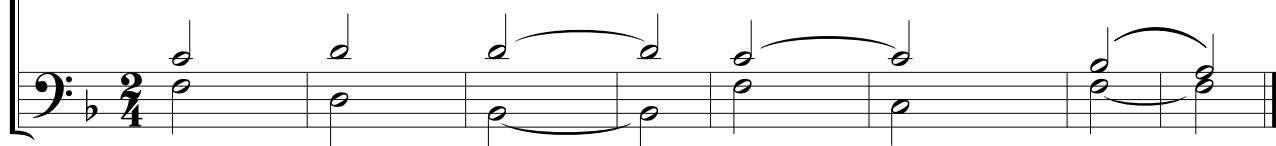


사순 제 5 주일 화답송 [다해]

시편 126(125), 1-2 ㄱ ㄴ . 2 ㄷ ㄹ - 3. 4-5. 6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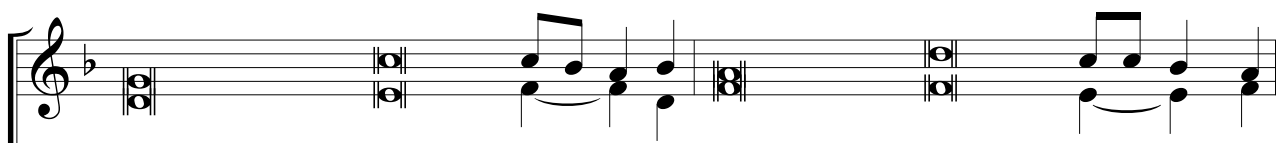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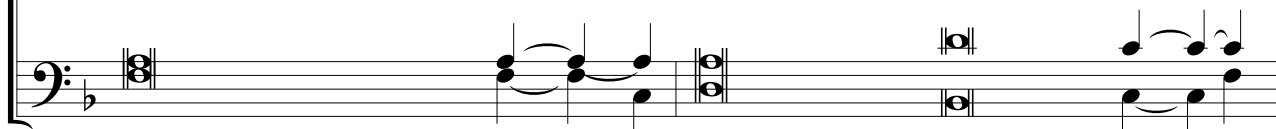
(후렴) 주 님 이 큰 일 을 하 셧 기 에 우 리 는 기 뻔 하 였 네.

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주실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 - 였네.

2. 그 때 민족들이 말하였 - 네. "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 셧 구 나."

3. 주님, 저희의 귀양살이 되돌리소서. 눈물로 환호하며 거두리 라.
네겔 땅 시냇물처럼 씨뿌리던 사람들



그 때 우리 입에는웃음이 넘 - 치 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 득 찼 네.
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 셧 기 에 우리는 기뻔 하 - 였 네.

뿌릴 씨 들고 울며 가던 사 - 람 들 곡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 아 오리라.

